



즉시 배포용: 2026년 2월 3일

KATHY HOCHUL 주지사

자금 직접 지원: **HOCHUL** 주지사, 차량 보험료 인하 및 허위 청구 근절을 위한 제안 강조
*사기를 방지하고, 부정 행위자에게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을 제한하며, 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가 우선시되도록 조치*

*제안, 뉴욕주를 더 저렴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일하는 뉴욕 주민들의 주머니에 다시 돈을
돌려주기 위한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노력에 기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서 차량 보험료를 인하하고 허위 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제안들을 강조했습니다. 주지사는 사기를 방지하고,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을 제한하며, 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가 우선시되도록 하기 위해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주를 더욱 저렴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일하는 뉴욕 주민들의 주머니에 다시 돈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Hochul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노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동차는 출퇴근이나 불일을 보기 위해 매일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제안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허위 청구를 단속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뉴욕 주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돌려주어 그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연평균 총액이 4,000달러를 조금 넘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거의 1,500달러나 더 많은 금액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사기, 소송, 법적 허점, 집행의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승합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고의로 사고를 내는 행위와 관련된 보험 사기가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연평균 최대 300달러까지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뉴욕 주민들의 요금 인하를 위한 사기 단속

점점 더 정교해지는 범죄자들이 보험사나 배심원 판결로부터 '잭팟(jackpot)' 보상을 받기 위해 정교하게 사고를 조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기가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뉴욕주에서는 1,729건의 조작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조작 사기 사건 발생 건수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2025년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산하 보험사기국(Insurance Frauds

Bureau)에 보험사들이 보고한 의심되는 자동차 보험 사기 사건은 총 43,811건입니다. 이는 2020년의 의심되는 자동차 보험 사기 사건 24,238건에서 증가한 것으로, 3년 만에 80% 증가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맞서기 위해 정부 전체가 참여하는 접근 방식을 마련하여 자동차 보험 사기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 주 내 자동차 절도 및 보험 사기 방지 위원회(Motor Vehicle Theft and Insurance Fraud Prevention Board)를 재활성화하여, 주 전역에서 보험 사기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합니다.
- 검사가 운전한 특정인뿐만 아니라 조작된 사고를 조직한 모든 개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
- 주정부는 뉴욕 전역의 지방 검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뉴욕 주민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조직적인 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사건을 구축하는 데 도움 제공
- 거액의 지급으로 이어지는 허위 진단서에 서명하여 사기에 가담하는 의료 제공자에 대한 대응 노력 강화
- 뉴욕 운전자들이 차량을 다른 주에 불법으로 등록하여 보험 적용 범위를 인위적으로 줄이고 법을 준수하는 뉴욕 운전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조치

보험사 보험사기 방지 프로그램 강화

현행 법률은 보험사가 사기 및 남용으로부터 법을 준수하는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기 사례를 식별하고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을 단 3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식별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Hochul 주지사는 보험사가 사기를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법정에서 사기를 주장하는 데에 대한 장벽을 낮출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청구를 조사할 시간을 더 확보하고, 허위 청구에 대한 지급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입법은 사기를 단속하기 위한 유연성 증대와 중요한 소비자 보호를 유지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출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개인의 손해배상 한도 설정

운전자들이 사고 발생 시 불법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상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들, 즉 음주 운전을 포함한 범죄자들이 정신적 고통 및 감정적 고통과 같은 비경제적 손해에 대해 관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상금은 법을 준수하는 운전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에서 지급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사고 당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한 운전자, 즉 무보험 운전자, 사고 당시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그리고 사고 당시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도주 중인 자에 대해 이러한 유형의 비경제적 손해배상금 지급 한도를 설정할 것입니다.

사고 발생에 '중대' 책임이 있는 개인의 손해배상 한도 설정

뉴욕은 사고에서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 운전자도 비경제적 손해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수의 주에 속합니다. 뉴욕에서는

사고에 대해 주로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운전자조차도 그 사고로 인해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원고가 사고에 대해 주로 책임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식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주지사는 사고에 대해 주로 책임이 있는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주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사고 후 보험으로 보상받는 사람에 대한 책임의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한 조치입니다.

중상해 기준 강화

뉴욕의 무과실 보험법은 자동차 사고로 심각하게 부상당한 개인이 부상과 관련된 의료비나 임금 손실 보상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추가 보상은 중상 피해자들의 고통과 고생 같은 비경제적 손해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뉴욕의 중상에 대한 법적 정의는 현재 모호하고 일관성 없이 적용되며, 사고 후 잠시 동안만 개인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일시적인 부상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중상으로 간주되는 기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중상 기준을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개혁은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피하고, 부상의 심각성과 맞지 않는 보상을 받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를 올리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대책임제도의 개혁

뉴욕에서는 두 명 이상의 피고가 관련된 자동차 사고로 인한 개인 상해 사건에서, 다른 피고가 배상하지 않을 경우 각 피고인은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비경제적 손해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뉴욕은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피고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이 규정을 이미 도입한 28개 주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자신이 야기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발생한 손해만을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절감 혜택이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보장

1970년대 이후 DFS는 자동차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소비자 보호 장치로서 초과 이익법(Excess Profit Law)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법은 자동차 보험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경우 그 초과 이익을 직접 보험 가입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회로 차단기' 역할을 합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위에서 제안된 자동차 보험법 개혁이 시행될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혁이 시행되면, Hochul 주지사는 DFS에 초과 이익법과 특히 현재의 기준 발동 요건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우선시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보험 가입자를 위한 투명성 강화

너무 자주,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아무런 설명이나 확인 가능한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인상됩니다. 높은 금리 시대에 뉴욕 주민들은 언제 그리고 왜 자신의 보험료가 오르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주지사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변경에 대해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변경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안전 운전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선

보험사는 시스템을 악용하는 불순한 행위자들을 경계하는 한편, 규칙을 준수하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운전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모색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운전자들을 도로 안전 강화 노력의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낮춤으로써 보험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운전과 보험 사기를 줄이는 것으로 입증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